전남 곡성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이 경주로 간 까닭은?

태풍 피해 입은 경주 지역 주민에 빨래 서비스 제공
옥과농협서 지원…세탁기 6대 · 건조기 3대 설치

곡성군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에 이동 빨래방 차량을 제공하며 태풍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곡성군에서는 올해부터 '건강·행복 플러스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행복빨래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취약 계층에게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 곡성지역자활센터, 옥과농협, 석곡농협, 곡성군자원봉사센터, 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3회에 주민에게 빨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곡성 군민을 위한 이동 빨래 차량이지만 13일에는 태풍 피해 지역인 경주로 향했다. 14일까지 이틀간 세탁기 고장, 전기 누전으로 세탁을 못하는 태풍 피해 주민들의 이불과 옷가지를 세탁해 주기 위해서다. 빨래 차량은 곡성군 옥과농협에서 지원했으며 세탁기(24kg) 6대, 건조기(17kg) 3대가 설치되어 있다. 차량에는 자원봉사자 2명이 동행해 빨래 수거와 배달을 돕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옥과농협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 피해가 심한 곳은 수도시설이 망가져 빨래 차량 지원도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지원하고자 구축한 시스템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다행이다.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빨래 서비스 제공은 포항과 경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곡성군자원봉사센터가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취해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곡성=양해영 기자

나주시 쌀 브랜드'왕건이 탐낸 쌀'첫 대미 수출

제49회 미국 한인축제 한국농산물 엑스포전 10톤 출품

나주시 대표 쌀 브랜드인 '왕건이 탐낸 쌀'이 미국 현지 밥상에 오른다.

나주시는 지난 13일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RPC)과 함께 제49회 미국 한인축제 한국농수산물 및 우수상품 엑스포전에 출품할 왕건이 탐낸 쌀 상차 행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한인축제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LA한인타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앞서 지난 8월 10일 서울시에서 황병국 미주상공회의소 총회장과 만나 한인축제에 선보일 나주 쌀과 우수 농특산물 수출 관련 사전 미팅을 가졌다.

윤 시장은 이 자리서 나주배, 김치 등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의 홍보·판촉과 더불어 나주지역 에너지산업 전력기자재 업체의 수출 판로 확보를 황 회장에게 제안했었다.

올해 첫 대미 수출 물고를 튼 왕건이 탐낸 쌀은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한 친환경 청무쌀로 지난 2003년부터 고품질 쌀 선호 소비 트랜드에 맞춰 개발 육성한 우량 품종이다.

특히 지난 해 코로나19 방역 의료진을 비롯한 국가·사회 유공자 1만5천여명에게 전달된 대통령 추석 선물세트에 포함되면서 당해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이번 수출물량은 5kg단위 2500포대로 총 10톤 규모다.

나주=송준표 기자

장성호 미락마을, 민물고기 요리 맛집 "바로 여기!"

오랜 노하우로 비린내 잡아 인기…수변길 관광수요 연계로 발전 가능성 ↑

장성호 수변길 인근 미락마을이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도락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황룡강의 시작점이자 장성호 하류 지역에 위치한 미락마을은 민물고기 요리 맛집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다. 가게마다 비린내를 없애는 비결을 지녀 고객층이 두터운 것이 특징이다.

장성호 수변 데크길과 출렁다리가 개통된 이후에는 주말 평균 7000명의 관광수요가 발생해 카페, 베이커리가 들어서는 등 상권 발달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장성군도 2019년 10억 원 규모 '남도음식거리 공모사업' 선정으로 미락마을에 장어정식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민물고기 요리 명가'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이 활기를 띠자 주민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9일에는 미락단지 상가번영회가 추진한 ' 추석맞이 미락단지 음악회'가 열려 방문객과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번영회 김종률 회장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문화 공연을 마련해 미락마을 고객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도 밝다. 민선8기 장성군 공약사업인 '남도음식문화진흥원 유치'와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이 추진되면 미락마을의 발전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10월 황룡강 가을꽃축제와 연계해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운영, 관광코스 발굴, 레시피 개발 등 미락마을을 명품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김수권 기자

이병노 담양군수, 평화예술공원 조성사업 현장 점검

이병노 담양군수는 평화의 이미지를 상징화하고 예술이 공존하는 공원 조성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담양읍 반룡리 340-10번지 일원에 조성될 평화예술공원은 총 28,060㎡의 부지에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현 사업부지는 구 88고속도로 유휴부지로,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평화의 이미지를 상징화하고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기념공간에는 충혼탑과 함께 예술활동 공유공간, 유아 및 어린이들의 교통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체험공간 등을 조성해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와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배 신품종 평가회

구례군은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례영배 영농조합법인 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 신품종 성과 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는 2017년부터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배를 시작하여 올해 첫 수확한 신품종 '조이스킨'배 전시·품평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구례 영배 영농조합법인은 신품종 도입에 따른 전문재배기술 습득을 위하여 전문 컨설턴트에게 배 과원관리 등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6회 받았다. 신품종인 조이스킨의 성숙기는 9월 상순이며 과중은 320g, 당도는 15.2Brix로 높다. 특히 조이스킨은 껍질째 먹을 수 있어 벌써부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